



기술개발 적극 투자, 수출 주력 기업 성장 전망

이달 조 군포공장 준공, 확장 이전 예정



▶ 이정의 대표이사

지난 90년 동호제작소로 출발해 92년 9월 법인인가를 받으면서 현 상호로 거듭난 동호기계(주)는 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새로운 디자인 및 기능의 혁신, 적극적인 기술투자에 매진한다는 일념을 어려운 시기를 불사하고 추진, 탄탄한 성장을 해 온 업체이다.

동호기계(주)는 지난 해의 IMF 등 여러 번의 어려움을 넘기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포장기 업체에서 근무하던 이정의 현 대표이사가 92년부터 경영에 참여하며 시작된 내실위주 경영과 설립당시의 멤버들이 근 10년여를 이어오며 다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동호기계(주)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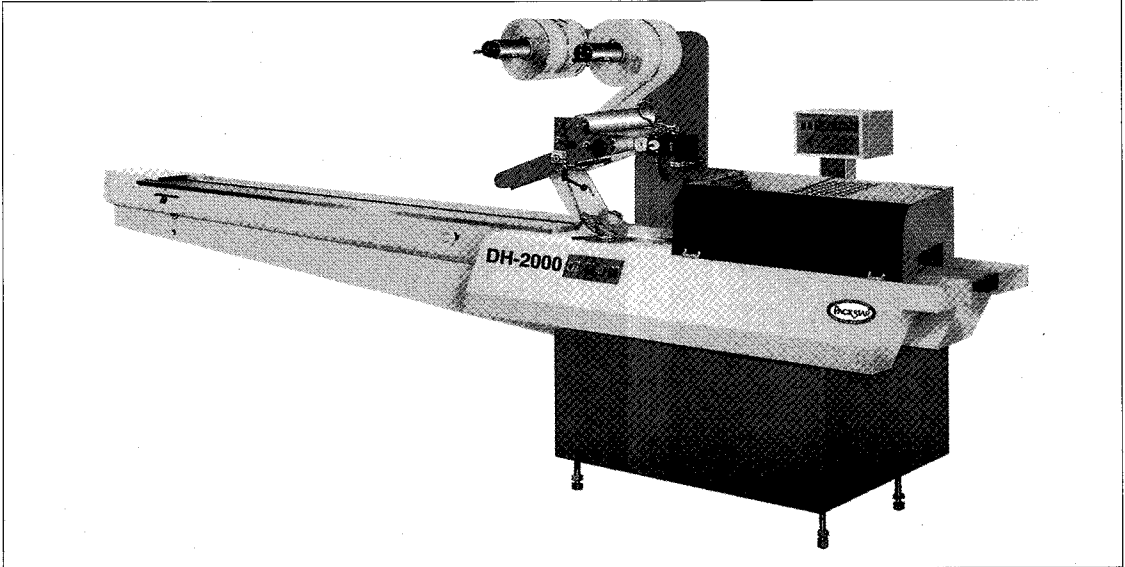
오랜 노하우와 우수한 기술을 갖춘 23명의 임직원이 다양한 기종과 포장기 전후공정의 자동화

라인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동호기계(주)는 국내 최초로 횡형수축포장기에 대한 'EM MARK'를 획득하기도 했다.

“저희 동호기계(주)는 규모를 확장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에 집중해 내실을 다지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라는 이정의 대표이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타 산업의 대기업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체설계 프로그램의 3D화를 도입, 지난 98년부터 일부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도입에서부터 설치까지 2억원 가량의 소요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연간 매출목표액이 30억원 정도인 저희 회사로서는 당장의 실용성이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프로그램 설치에 2억원의 자금을 단기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라는 이 사장은 설계기사 중 컴퓨터 조작이 능숙한 2~3명을 중심으로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실전에 투입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98년부터 'PACKSTAR'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포장 전 공정을 일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종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근 1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 동호기계(주)의 DH-2000 표준형 정통형 필로우 포장기

21세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동호기계(주)의 노력의 일환이다.

동호기계(주)의 생산품목 중 '서보구동 횡형 필로우 포장기'는 개발혁신자금의 지원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어 대화식 터치패널과 마이콤을 채용, 조작이 쉽고 모든 상황이 디스플레이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포장대상 품목을 30종까지 메모리하고 호출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속도에 따라 쉐어링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불량률이 적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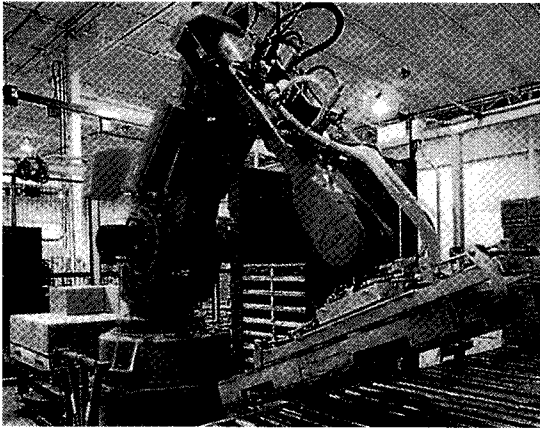
또 한가지 생산품목인 '서보구동 중형 필로우 포장기'는 조작이 쉽도록 마이콤과 대화식 터치스크린을 채용했으며 역시 포장제품을 30종류까지 메모리하고 품종 호출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필름, 마크조정, 좌우조장, 프린터 위치 조정

을 전동식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서보구동 방식의 필름이송으로 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횡형수축포장기에 대해 업계 최초로 'EM MARK'를 획득한 바 있는 이 기종 중 'Super Multi Shrink Wrapper DS-150/150W'는 요구르트병과 음료병, 캔, 부탄가스 캔 제품을 1열 또는 2열로 3개 내지 6개씩 직접 고속 포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30~150bag/min의 작업속도를 보유하고 있다.

20case/min의 작업속도와 Hot Melt Glue 방식의 박스실링을 통해 낮은 코스트와 단순하고 규격화된 패키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AUTO BOX CASER'는 D 200~450, L 150~350, W 250~500 규격의 박스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종인 'TOP LOADING SET UP CASER DSC-200'은 OPP Tape 방식과 Hot



▲ 동호기계(주)의 팔렛타이징 시스템

Melt Glue 방식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으며 X-Y Robot System으로 박스에 제품을 넣을 수 있어 편리하다.

포장공정 일원화를 위해 개발한 '팔렛타이징 시스템'은 적은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당 최고 1,500bag 또는 2,000box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10가지 패턴의 조작이 쉬운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어 호응이 높은 제품이다. 또한 '팔레트 스트레치 랩핑기'는 랩핑가능 무게가 최고 2,500kg이며 최고 9RPM의 속도를 자랑한다.

작업시 기둥 속에 필름 캐리지가 있어 안전하며 구조가 간결해 고장이 없고 정비가 쉬우며 필름의 연신률이 탁월해 매우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호기계(주)는 자동 공급 및 계량장치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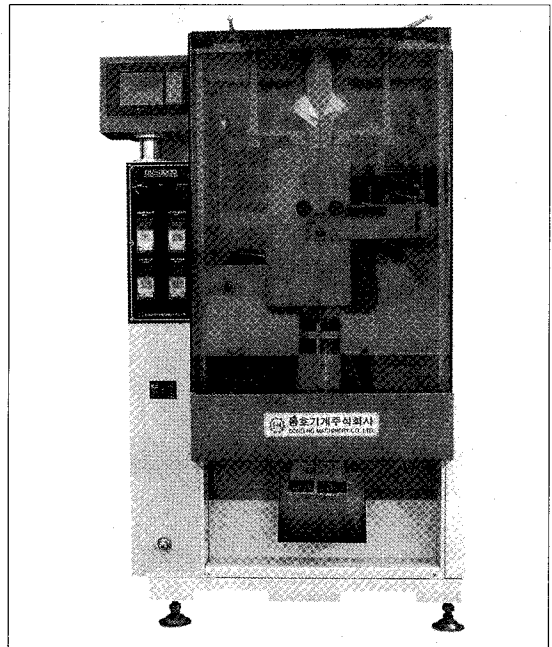
이러한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 거래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있는 동호기계(주)는 냉동식품업체와 유업체 등을 중심으로 연간 70~80개 업체 정

도에 단품 위주의 거래를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저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동호기계(주)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 개념의 B/S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를 사용하는 유저 측에서 제품의 이상을 의뢰해 오는 경우, A/S를 실시하는 것은 업계에 이미 일반화된 일이다.

동호기계(주) 역시 이처럼 일반적인 A/S를 실시하던 중 지난 96년부터 그 주변에 있는 유저를 방문해 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혹은 부품을 교체할 시기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데서부터 B/S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거래업체로부터 저희 동호기계(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관리차원에서 시작하면서 사후관리비의 부담도 감수할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B/S 시작 6개월 후부터는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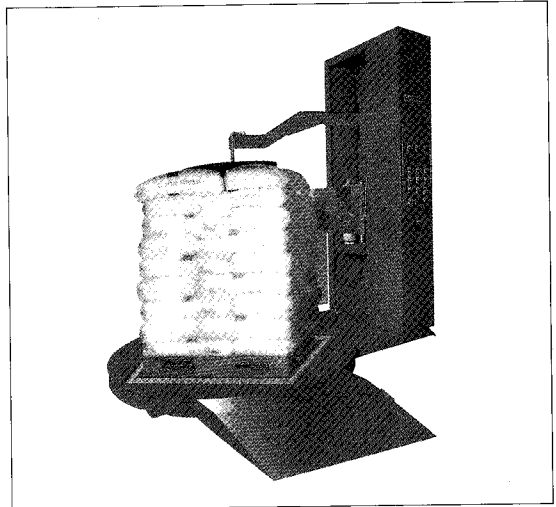
▲ 표준형 중형 포장기 DV-3000/3000W

판매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이 사장은 이러한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사전점검을 통해 유지 측이 동호기계(주)에 가지게 되는 신뢰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특별한 영업전략없이도 입소문처럼 동호기계(주)에서 생산하는 기계에 대한 좋은 평이 돌면서 조금씩 거래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또 한가지의 큰 효과라 할 수 있겠다.

“경쟁력있는 금액으로 앞선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저희 동호기계(주)는 지금까지 내수 위주의 생산을 해오면서 단품을 수출해 왔습니다”라는 이 사장은 물론 내수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 1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수출량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동호기계(주)의 수출실적은 국내 업체 중 수출하는 업체의 제품에 동호기계(주)의 단품을 함께 동반 수출하는 수준으로 쌓여왔는데 앞으로는 에이전트를 구하고 지역별 대리점제 등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색을 통해 2001년까지 적어도 30% 이상의 자체 수출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동호기계(주)는 이달 초 군포공단에 대지 450평, 건평 350평 규모의 공장을 완공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체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이전 준비과정에서 좋은 환경의 공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빛없이 확장 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확장을 통해 개선된 작업환경에서 더 유능하고 성실한 인원을 보충해 내실을



▲ 팔레트 스트레처 랩핑기 DP-2815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전개획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면서 인원의 확충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량의 증대는 물론 30% 수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을 확신했다.

“생산량의 증대와 수출량의 확보가 이루어지면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라는 이 사장은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이직률없이 동호기계(주)의 지금을 있게 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항상 모든 직원과 회사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개방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이 사장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뭉친 동호기계(주) 임직원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 공장 확장을 시작으로 탄탄하게 펼쳐질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

윤지은 기자